

The 논술	2013 연세대 인문
--------	-------------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

강녕의 용반, 소주의 등위, 항주의 서계는 모두 매화 산지이다. 어떤 이는 “매화는 휘어져야 아름답고 곧으면 맵시가 없으며, 틀어져야 아름답고 똑바르면 볼품이 없으며, 성기어야 아름답고 뻣뻣하면 자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하지만 문인화가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천하의 매화를 평가한다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곧은 것을 베고 뻣뻣한 것을 쳐내고 똑바른 것을 잘라 매화를 병들게 하고 매화를 빨리 죽게 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돈을 벌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화를 틀어지게 하고 성기게 하고 휘어지게 하는 것은 돈 벌기에 급급한 우둔한 사람들이 그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신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괴벽한 취미를 매화 파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똑바른 것을 베어 결가지를 키우고 뻣뻣한 것을 쳐내 어린 가지를 죽이고 곧은 것을 잘라 생기를 막음으로써 높은 값을 구하게 하니, 강(江: 장쑤성)과 절(浙: 저장성) 지방의 매화는 모두 병이 들었다. 문인화가들이 끼친 폐해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이야! 나는 300개의 매화 분재를 샀는데 모두 병들었고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3일 동안 울고 나서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뜨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여맨 끈을 풀어주었다. 5년을 기약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제시문 (나)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 온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건물임이 틀림없다. 기둥 높이와 굽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처너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쓰다듬어 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에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싶어진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 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알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주고 부처님의 믿음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이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당간지주가 서 있는 절 밖,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닦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 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마도 먼 안

산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 낀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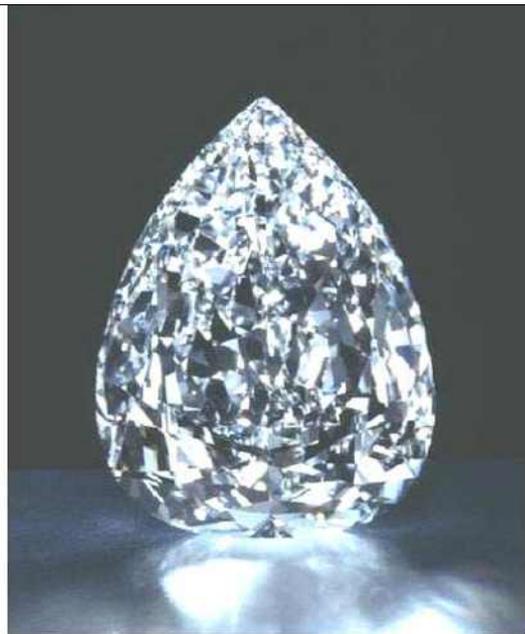
제시문 (다)

르네상스 시대 궁정의 여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아함’이 요구되었다.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은 ‘꾸민 듯함’이다. ‘꾸민 듯함(아페타티오네)’은 ‘아무런 티도 안 냄(스프레짜투라)’과 대비된다. ‘우아함’을 훌륭하게 연출하는 최대의 요령은 이 ‘아무런 티도 안 냄’에 있다. ‘우아함’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런 티도 안 냄’이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다. ‘아무런 티도 안 냄’이란 ‘기교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마치 아무런 노력이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아함’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타인이자 동료인 궁정인들의 시선을 과도할 정도로까지 의식하고 계산한 끝에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표면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주체가 연기하는 ‘아무런 티도 안 냄’이라는 ‘태도(마니에라)’의 이상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움이란 인위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패러독스에 ‘아무런 티도 안 냄’의 본질이 있다. 특히 여성은 그 태도나 몸가짐에서 가능한 한 ‘아무런 티도 안 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즉 섬세하게 깔고 닦은 정신을 지니면서도 늘 아무런 궁리나 노력도 하지 않은 듯이 보여야 하는 것이다. 줄리아노의 말처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욱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교묘하게 이 패러독스를 연기해야 한다.

제시문 (라)



다이아몬드 원석



물방울 다이아몬드

1. 출제 의도 및 제시문 설명	
출제 의도	<p>1)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제시된 문제에 답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적 분석력, 독창적 사고력,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p> <p>2)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통된 주제를 파악해내는 능력, 그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다면적 능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p> <p>3) ‘자연’과 ‘인위’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p>
(가)	이 제시문은 중국 청나라의 문인학자 공자진(龔自珍)이 지은 「병매관기(病梅館記)」이다. 이 글은 당시 너무나 왜곡된 매화나무의 미적 기준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질은 도외시한 채 화려하고 허황된 것만 추종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세태를 고발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종의 수필과 같은 글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형식의 글이다.
(나)	이 제시문은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무량수전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자연과 건조물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자연 본래의 아름다움을 더욱 발현시키는 것을 순리의 아름다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글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워낙 유명한 글이기에 언어영역과 역사과목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다.
(다)	이 제시문은 오카다 아쓰시의 『르네상스의 미인들』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르네상스 시대 미인들에게 요구된 ‘우아함’을 정의하면서 ‘아무런 티도 안나게’, 즉 최대한 자연스럽게 꾸밀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시문 역시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기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이다.
(라)	이 제시문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이를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보석의 그림이다.

2. 1번 문제 풀이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 전략 구상 (논제이해의 원리를 적용하여)	
<p><문제> 제시문 (가), (나), (다)에 공통된 주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삼자비교 활용형) ※ 어떠한 원리를 통해 답을 도출할 것인가?</p>	
① 논제이해	Basic편의 '논제이해'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
② 개요작성하기	Basic편의 '개요작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
③ 공통주제어 및 근거찾기	Basic편의 '요약'의 원리 이용하여 해결
④ 다면적으로 비교하기	Basic편의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
⑤ 답안 작성	Basic편의 '논증'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
2) 논제이해 및 개요작성	
2)-1 논제 이해	
->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된 주제어 가 무엇인가를 채점자가 알기 쉽도록 두괄식으로 밝히고 (대주제로 설정), 그 뒤에 그 근거 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간략하게 쓰시오. (논증력, 설득력) 그리고 다면적 관점을 가진 제시문들이기에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공통된 주제어와 관련된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각 제시문들을 비교 하시오	
2)-2 개요작성 (삼자비교형의 활용)	
<p>이 문제는 (가), (나), (다)를 비교하라는 점에서 볼 때 삼자비교형에 속하나 공통주제어를 찾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삼자비교형과 차이가 있으므로 삼자비교형의 활용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의 경우 삼자비교형의 기본적 구조로 답안을 작성하되 공통주제어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 구조에서 조금 벗어난 구조로써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순서는 ①공통주제어 및 근거 찾기 ②비교하기 ③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작성입니다. 답안의 서론에 가장 먼저 나오는 ③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작성을 맨 마지막에 작성하기로 한 것은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각 제시문을 독해, 요약,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p> <p>(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개요는 어디까지나 글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개요와 실제 답안이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p>	
1문단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② 세 제시문 (A, B, C)의 공통점을 아우르는 대주제 설정 (공통주제어와 그에 대한 근거)	
2문단	
③ 제시문 (A)를 두 제시문 (B, C)와 분리하며 소주제 설정	

④ 제시문(A)가 왜 두 제시문(B, 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제시문(A)에 대한 다면적 분석	
⑤ 제시문(B, C)가 왜 제시문(A)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	
3문단	
⑥ 두 제시문(B, C)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며 소주제 설정	
⑦ 제시문(B)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⑧ 제시문(C)가 왜 제시문(C)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근거와 다면적 분석	
3) 공통주제어 찾기 ('요약' 의 원리를 이용하여)	
3) -1 각 제시문 파악	
(가)	선택과 삭제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괴벽한 취미를 매화 피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뚝 바른 것을 베어 곁가지를 키우고 뻑뻑 한 것을 쳐내 어린 가지를 죽이고 곧은 것을 잘라 생기를 막음으로써 높은 값을 구하게 하니 , 강(江: 장쑤성)과 절(浙: 저장성) 지방의 매화는 모두 병이 들었다 . 3일 동안 울고 나서 그것들을 치료 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뜨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여맨 끈을 풀어주었다 .
	제시문 이해
	(가)의 화자는 세속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매화를 변형시켜 매화들이 병이 들고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화분을 깨뜨리는 행위로써 매화가 순리에 따라 자연적 아름다움을 되찾게 하려합니다. 이는 인위성을 거부하고 자연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선택과 삭제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싶어진다 .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맞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알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주고... ’,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 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제시문 이해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마치 자연의 한 부분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예찬합니다. 자연이 무량수전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무량수전도 자연으로 인해 더 아름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 아름다움과 인공적 아름다움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아름다움을 자아낸다고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선택과 삭제
	‘ 아무런 티도 안 냄 ’이란 ‘기교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마치 아무런 노력이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p>그럴 때 ‘우아함’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주체가 연기하는 ‘아무런 티도 안냄’이라는 ‘태도’의 이상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움이란 인위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패러독스에 ‘아무런 티도 안냄’의 본질이 있다.</p>
	<p>제시문 이해</p> <p>(다)는 르네상스 궁정의 여인들이 우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음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했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극도로 계산된 인위적 행동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런 티도 안냄’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이 제시문이 자연적 아름다움을 예찬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아무런 티도 안냄’은 극도의 계산을 통해 나온 인위적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아함은 이는 결국 인위로 채워진 행동이라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다)는 자연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위적, 작위적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3)-2 공통주제어 도출과 그에 대한 근거 제시</p>	
<p>공통 주제어 - ‘아름다움’</p>	
<p>이제 각 제시문들의 논지파악이 끝났으므로 공통주제어를 설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에서는 변형된 매화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세대에 대해 비판하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화자가 나옵니다. <나>에서는 자연 속에서 인공물인 무량수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에서는 작위적인 연출을 통하여 자연미를 얻으려했던 르네상스시대의 여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공통된 주제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 ‘미적 기준’, ‘아름다움의 의미’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통주제어는 수험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키워드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공통 주제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013 연세대 인문계열 논술전형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가 공통된 주제어가 무엇인지만 밝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논술은 논증력을 요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제시문의 문장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p>	
<p>[참고 - 연세대가 발표한 출제의도 및 평가기준]</p> <p>이 문제는 자연과 인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다양한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선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세 제시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세 제시문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어는 수험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p>	
<p>1차 답안 정리하기 (재구성 및 중립적 표현)</p>	
<p>(가), (나), (다)의 공통주제어는 ‘아름다움’이다. (주장) (가)의 화자는 상품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휘어진 매화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를 더 아름답다 여기고, (나)의 화자는 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태에 감탄하고, (다)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극도의 인위성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것을 아름답다 여기기 때문이다. (근거)</p>	
<p>4) 비교하기</p>	

<p>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주제어와 그에 대한 근거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이는 글의 전체 구성 중 대주제 설정에 해당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제시문을 비교하여 소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다면적으로 비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Basic편의 비교의 원리를 사용하여 각 제시문들을 비교해야 할 것인데, 이 문제에선 ‘아름다움’이라는 비교기준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의 원리 중 일반적 기준인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가 아닌 특별한 기준인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각 제시문을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잠깐!]</p> <p>연세대 채점기준</p> <p>독해력: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제시문의 대주제와 소주제를 파악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제: 여러 개의 제시문에 공통된 주제 - 소주제: 대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특정한 제시문에 담긴 주제 - 대주제와 소주제의 연관관계: 대체로 제시문들은 대주제를 반영하는 여러 개의 텍스트로 구성되므로 여러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제시문과 대주제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p>4) - 1 특별한 기준 세우기</p>			
아름다움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p>4) - 2 표로 정리하며 순서설정하기</p>			
X	(가)	(나)	(다)
	자연적 아름다움	자연적 아름다움과 인위적 아름다움의 조화	인위적 아름다움
아름다움	매화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인위성을 극대화한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p>(가)의 화자는 인위적으로 매화를 휘게 만들어 상품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매화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의 화자는 인위성이 가미된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자연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이에 반해, (다)에 나오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인위성을 극도로 연출하여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려고 했으므로 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위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나)는 위와 같은 두 입장을 절충합니다. (나)의 화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량수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며 감탄합니다. 따라서 (나)는 자연적 아름다움과 인위적 아름다움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조화를 이룰 때 그 아름다움이 극대화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p> <p>이 문제 유형은 연세대의 전형적 1번 문제인 삼자활용형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제시문을 두 제시문과 나누는 1:2분리구성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와 (다)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가)를 (나), (다)와 분리하든 지 (다)를 (가), (나)를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p>			

논지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2차 답안 정리하기 (1:2분리구성)	
<p>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가)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부정하고, (나)와(다)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의 화자는 상품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매화를 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이는 인위적으로 매화를 휘게 하여 만든 곡선미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가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화자는 매화가 다시 자연적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도록 휘어진 매화를 동여매고 있는 끈을 풀어 매화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인위적 건축물인 무량수전을 아름답다 여기고 제시문 (다)는 인위적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것을 아름답다 여긴다.</p> <p>하지만 (나)는 인위적 아름다움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아름다움까지 긍정하며 이 둘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반해, (다)는 철저하게 인위성만을 긍정하여 이를 통해 자연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나)는 무량수전의 긴 석축들이 산의 능선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예찬하며 이를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자연의 경관에 멋스러운 무량수전의 인위적 아름다움이 더해져 서로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는 일견 자연적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인위적 아름다움만을 예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에서 말하는 자연적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아름다움이 아니며 극도의 인위적 연출로써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는 아름다움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5)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작성하기	
공통주제어는 ‘아름다움’이며, 각 제시문들은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제시문들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준은 상이했기에 이러한 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3차 답안 정리하기 (주제를 포괄형 문장)	
아름다움은 그 유형에 따라 인위적 아름다움, 자연적 아름다움, 그리고 이 둘의 조화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유형은 다르다.	
6) 답안 작성	
1, 2, 3차 답안이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적절한 순서로 재구성하여 답안을 완성시켜 봅시다.	
1문단	아름다움은 그 유형에 따라 인위적 아름다움, 자연적 아름다움, 그리고 이 둘의 조화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유형은 다르다.
2문단	(가), (나), (다)의 공통주제어는 ‘아름다움’이다. (가)의 화자는 상품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휘어진 매화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를 더 아름답다 여기고, (나)의 화자는 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태에 감탄하고, (다)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극도의 인위성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것을 아름답다 여기기 때문이다.
3문단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가)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부정하고, (나)와(다)는 인위적 아름다움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의 화자는 상품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매화를 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이는 인위적으로 매화를 휘게 하여 만든 곡선미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가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p>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화자는 매화가 다시 자연적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도록 휘어진 매화를 동여매고 있는 끈을 풀어 매화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인위적 건축물인 무량수전을 아름답다 여기고 제시문 (다)는 인위적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것을 아름답다 여긴다.</p>
<p>4문단</p>	<p>하지만 (나)는 인위적 아름다움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아름다움까지 긍정하며 이 둘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반해, (다)는 철저하게 인위성만을 긍정하여 이를 통해 자연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나)는 무량수전의 긴 석축들이 산의 능선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예찬하며 이를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자연의 경관에 멋스러운 무량수전의 인위적 아름다움이 더해져 서로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는 일견 자연적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인위적 아름다움만을 예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에서 말하는 자연적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아름다움이 아니며 극도의 인위적 연출로써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는 아름다움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5) 문제 총평</p>	
<p>이 문제는 자연과 인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다양한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선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세 제시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세 제시문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어는 수험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p>	